

2018년 11월 16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애플 및 반도체 업종 상승 주도 모건스탠리, '애플 하락은 시장이 과잉 반응을 보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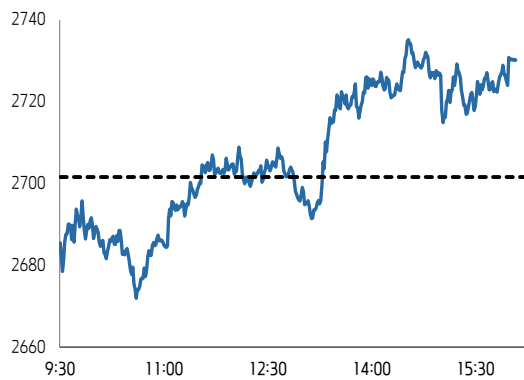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미 증시는 양호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소매유통업체들의 비용 증가 우려로 하락 출발. 더불어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부각된 여파로 한 때 1% 넘게 하락. 그러나 금융주, 반도체 및 애플 등 최근 약세를 보여왔던 업종과 종목이 강세를 보이자 상승 전환에 성공(다우 +0.83%, 나스닥 +1.72%, S&P500 +1.06%, 러셀 2000 +1.44%)

미 증시는 ①최저임금 법안 ②브렉시트 불확실성 ③금융주 강세 ④애플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변화를 보임. 먼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최저임금 15 달러'에 대한 입법안을 발표. "최저 임금 15 달러를 지불하지 않는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금지한다" 가 주요 내용. 샌더스 의원은 'Walter Stop Act'라 불리는 법안을 통해 500 명 이상이 근무하는 회사들이 그 대상이라고 규정. 관련 소식으로 월마트(-1.96%)등 소매유통 업체 급락. 브렉시트 관련 이슈도 하락 요인. 협상 초안에 대해 영국 일부 장관들이 반발하며 사임하고, 보수당내 반 EU 모임인 ERG 가 메이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논란 확산. 반면, 스코틀랜드 정부는 '어업권'에 대한 구체화를 요구했으나 협상안에 대해서는 찬성. 이 소식이 알려지자 파운드화가 달러화 대비 1.5% 넘게 약세를 보였으며, 영국 금융주가 5~10% 내외 하락. 향후 일정은 25 일 EU 정상회담, 12 월 초 영국 의회 표결 등이 있음

반면, JP 모건(+2.55%) 등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자 지수는 반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하락 및 민주당의 규제 완화 저지 가능성이 높지만, 워렌버핏이 JP 모건 지분을 40 억 달러에 인수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힘입어 상승. 위축된 투자심리가 개선되었다는 평가. 한편, 애플(+2.47%)과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인 점도 미 증시 상승 전환 성공 요인. 애플은 아이폰 판매량 감소 우려로 하락해 왔으나, 모건스탠리가 최근 하락은 시장이 '과잉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매수 의견을 유지. 이에 힘입어 애플 부종주들도 강세를 보였으며 동반 하락했던 반도체 업종 또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미 증시 상승을 주도. 한편,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 또한 애플과 반도체 업종 강세 요인. 더불어 일부 헤지펀드 회사가 애플 지분을 추가로 매수 했다고 공시 한 점도 상승 요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88.06	+0.97	홍콩항셱	26,103.34	+1.75
KOSDAQ	681.38	+1.46	영국	7,038.01	+0.06
DOW	25,289.27	+0.83	독일	11,353.67	-0.52
NASDAQ	7,259.03	+1.72	프랑스	5,033.62	-0.70
S&P 500	2,730.20	+1.06	스페인	9,073.50	-0.36
상하이종합	2,668.17	+1.36	그리스	630.59	-0.64
일본	21,803.62	-0.20	이탈리아	18,905.36	-0.9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애플 반등 성공

애플(+2.47%)은 모건스탠리가 최근 하락은 시장이 과잉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발표하자 상승했다. 이에 힘입어 큐로브(+3.63%), 스카이웍(+2.61%), 브로드컴(+4.48%) 등 부품 업체들도 동반 상승했다. 한편, 마이크론(+4.94%), 인텔(+2.17%), TI(+3.44%)와 램리서치(+2.56%) 등 반도체 관련주도 상승했다.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34% 상승했다. 미 증시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AMAT(+4.29%)는 시간외로 3% 내외 하락 중이며, 노드스트롬(-3.45%)은 시간외로 11% 넘게 급락 중이다. NVIDIA(+2.64%)는 시간외로 15% 넘게 급락 중이다.

JP모건(+2.55%)은 워렌버핏이 40억달러 규모의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상승했다. BOA(+2.54%), 씨티그룹(+1.73%) 등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던 월마트(-1.96%)는 2% 넘게 상승 출발했으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최저임금 관련 법안을 발표하자 하락 전환했다. 비용 증가에 따른 실적 둔화 가능성이 제기된 여파다. 타겟(-2.85%), 코스트코(-1.44%), 메이시스(-2.86%) 등도 동반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49%	대형 가치주 ETF	+0.78%
에너지섹터 ETF	+1.70%	중형 가치주 ETF	+0.63%
소매업체 ETF	-0.67%	소형 가치주 ETF	+1.10%
금융섹터 ETF	+1.48%	배당주 ETF	+0.20%
기술섹터 ETF	+2.51%	변동성 ETF	-1.05%
소셜 미디어업체 ETF	+1.23%	대형 성장주 ETF	+1.25%
인터넷업체 ETF	+1.90%	중형 성장주 ETF	+1.38%
리츠업체 ETF	-0.78%	소형 성장주 ETF	+1.78%
주택건설업체 ETF	-0.88%	신흥국 고배당 ETF	+2.09%
바이오섹터 ETF	+2.19%	신흥국 저변동성 ETF	+1.40%
헬스케어 ETF	+0.92%	하이일드 ETF	-0.06%
곡물 ETF	-0.23%	물가연동채 ETF	+0.08%
반도체 ETF	+3.16%	Long/short ETF	-3.0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89.65	+1.48%	-3.53%	-8.38%
소재	341.90	+1.44%	-1.93%	+1.99%
산업재	603.96	+1.25%	-1.69%	-2.22%
경기소비재	842.66	+0.01%	-4.70%	-1.58%
필수소비재	572.77	-0.33%	-1.46%	+4.23%
헬스케어	1,053.61	+0.96%	-2.29%	-1.44%
금융	443.17	+1.44%	-2.32%	+0.49%
IT	1,195.08	+2.46%	-3.98%	-2.72%
커뮤니케이션	148.56	+0.62%	-2.12%	-2.86%
유틸리티	273.50	-0.77%	-1.49%	+0.30%
부동산	203.55	-0.90%	-0.39%	+4.4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34%

MSCI 한국 지수는 2.54% MSCI 신흥 지수도 2.23%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37계약) 했으나 2.05pt 상승한 274.1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6.8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브렉시트 불확실성과 소매유통업체 하락 여파로 장 초반 1%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락세를 이어왔던 애플이 반등에 성공하고, 동반해서 반도체 업종 또한 강세를 보이자 결국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애플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불거지며 한국내 관련 업종의 변동성이 컸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내 관련 종목들의 반등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NVIDIA 가 미 증시 마감 후 시간 외로 16% 가까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특히 10 월 31 일 중국의 정치국 회의 이후 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 정부와 함께 중간선거 이후 변화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11 월 29 일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소매판매 개선

10 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 운송을 제외한 수치도 전월 대비 0.7% 증가하는 등 견고한 움직임이었다.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전월(20.0) 보다 둔화된 12.9 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수주(19.3→9.1)가 하락을 주도 했으며, 고용지수(19.5→16.3) 등 대부분이 하락 했다.

뉴욕연은 지수는 전월(21.1) 보다 개선된 23.3 으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수주(22.5→20.4)가 하락 했으나, 출하지수(26.0→28.0) 등이 개선되었다.

미국 10 월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5%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로도 3.5% 상승 했다. 특히 원유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이 물가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파운드화 급락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불구하고 OPEC 의 감산 기대감,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완화 가능성 등에 힘입어 상승 했다. 다만, EIA 가 지난 주 원유 재고에 대해 예상치(+318 만 배럴) 보다 큰 1,027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하자 상승은 제한 되었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개선 및 파운드화 약세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다만, 유로화 및 신흥국 환율이 강세를 보이자 달러 강세폭은 제한 되었다. 유로화는 이탈리아 정당인 '동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이탈리아가 EU 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신흥국 환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우려감이 완화된 데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파월 연준의장 발언 이후 안정을 보이고 있다. 소매판매 개선 등 양호한 경제지표와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점은 상승 요인이었지만, 파월 의장이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한 점, 브렉시트 이슈가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 보험권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중립금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다.

금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반등에 성공하자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45%, 철근은 1.05%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6.46	+0.37	-6.94	Dollar Index	97.050	+0.26	+0.34
브렌트유	66.62	+0.76	-5.70	EUR/USD	1.1331	+0.19	-0.28
금	1,215.00	+0.40	-0.82	USD/JPY	113.59	-0.04	-0.42
은	14,263	+1.30	-1.11	GBP/USD	1.2778	-1.65	-2.17
알루미늄	1,929.00	-0.72	-3.07	USD/CHF	1.0064	-0.05	+0.05
전기동	6,184.00	+1.54	+0.47	AUD/USD	0.7281	+0.68	+0.34
아연	2,576.00	+2.96	+2.12	USD/CAD	1.3176	-0.50	+0.16
옥수수	378.25	+0.07	-1.82	USD/BRL	3.786	-0.62	+1.29
밀	514.75	+0.54	-0.96	USD/CNH	6.9269	-0.24	-0.20
대두	888.75	+0.59	+1.11	USD/KRW	1129.20	-0.45	+1.07
커피	113.80	-2.07	-5.32	USD/KRW NDF 1M	1126.84	-0.52	+0.51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3.110	-1.47	-12.70	스페인	1.628	+1.10	+2.30
한국	2.230	+3.30	-2.00	포르투갈	1.964	+0.40	+2.80
일본	0.109	-0.20	-1.30	그리스	4.558	+7.80	+24.40
독일	0.360	-3.80	-9.70	이탈리아	3.489	+0.20	+9.50